

‘bhc 일등공신’ 박현종 회장, 해임... 각종 소송 부담작용

GGG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해임
임금옥 대표 해임도 이사회 통과
“기업 명성, 브랜드 가치 강화”
bhc-BBQ 장기 소송전 영향도



박현종
bhc그룹 회장 겸 bhc그룹 지주사 GGS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bhc그룹을 이끌어 온 박현종 글로벌고메이서비스(GGS) 대표와 임금옥 bhc 대표가 최근 해임되고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bhc그룹의 지주회사인 GGS는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박현종 대표를 제외한 출석 이사 만장일치로 박현종 GGS 대표를 해임한 바 있다. 이번 해임 결정으로 박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게 됐지만, 사내이사 자리는 유지한다. 아울러, 임금옥 bhc 대표의 해임은 지난 8일 bhc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됐다.

박현종 대표는 bhc를 10년 가까이 이끌며 매출 기준 국내 1위 치킨 프랜차이즈로 성장시킨 입지전적 인물이다. 삼성전자 출신으로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트그룹이 BBQ로부터 bhc를 인수할 당시 전문경영인(CEO)으로 영입

됐다.

그는 bhc치킨을 업계 1위에 올려놓았음은 물론, 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로 bhc그룹을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와 ‘슈퍼푸드’, 한우전문점 ‘창고43’ 등 7개 외식 브랜드를 거느리는 외식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에 bhc그룹은 지난해 연매출이 전년보다 64% 성장하는 등 1조110억원을 기록하면서 ‘1조 클럽’에 가입하기도 했다.

특히 bhc치킨은 2022년에 매출 5075억원, 영업이익 141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6.4% 올랐으며, 영업이익은 7.8% 줄었다. 영업이익이 줄었지만, 영업이익률은 28% 수준으로 경쟁사 BBQ(15.31%)와 교촌(0.58%)의 영업이익률을 압도적으로 앞선 수치다.

이처럼 그룹의 성장을 이끈 박 대표를 해임한 조치를 두고 업계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GGG 측은 해임안에 대해 “대내외 경영환경에 맞춰 그룹 쇄신을 주려는 조치”라며 “기업 명성과 브랜드 가치 강화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향후 bhc 경영 방침을 두고 박 대표와 MBK파트너스 경영진 간에 마찰이 빈번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bhc와 BBQ의 장기 소송전으로 인한 오너리스크가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도 있다.

박현종 대표는 2015년 7월 BBQ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올해 1월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주주들이 제기한 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는 ‘BBQ에 27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한 이미지 실추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bhc가 현재 해외사업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만큼 오너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GGG는 bhc 지분 100%를 소유한 지주사로, MBK파트너스와 다른 투자사가 45%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박 대표도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배구조가 수차례 바뀌면서 지분이 희석돼 현재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hc 지주사·GGG 신임 대표로는 등기임원인 차영수 사내이사가 선임됐다. 임금옥 대표가 떠난 bhc 대표 자리에는 이훈종 사내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훈종 신임 대표는 현재 bhc의 임원 선임 관련 내부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전문경영인(CEO) 선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bhc는 설명했다.

/신선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생활비 절감 신용카드 관심

물가 고공행진에 가계 부담 확대
삼성 ‘아이디올’ 최대 24만원 혜택
신한 ‘플리카드’ 무제한 0.9% 할인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가계 부담이 확대하면서다. 캐시백, 할인율이 높은 가성비 카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3.8% 상승했다. 지난 8월과 9월 각각 3.4%, 3.7%를 기록한 데 이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물가가 13.5% 오르면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소비자 입장에

선 이른바 ‘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셈이다. 이에 따라 가성비 카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4인 가구의 1개월 식비 평균이 109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매달 최대 11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카드는 ‘아이디올(IDALL)’ 카드를 활용해 오프라인 물건 구매 고객을 정조준했다. 백화점, 할인점, 슈퍼마켓 중 가장 많이 소비한 영역에서 월 5%를 최대 1만원까지 할인한다. 이어 주유, 이동통신 아파트 관리비 등을 월 최대 1만원 할인한다. 연간 최대 24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톡톡 마이 리빙카드’를 선보였다. 전월 실적 30만원으로 온·오프라인 쇼핑 영역에서 결제금액

의 15%를 포인트로 제공한다. 이어 대여서비스, 통신, 교육, 저점 등에서도 10~15%를 적립할 수 있다.

우리카드는 ‘카드의정석 오하체크’의 혜택을 강화해 새롭게 출시했다. 전월실적은 간편 결제를 통해 이용하면 20만원으로 업계에서 가장 낮다. ▲무신사 ▲지그재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마켓컬리 등에서 5% 캐시백을 제공한다.

신한카드 이용자라면 ‘플리카드’를 눈여겨볼 만 하다. 신한플레이를 이용하면 전월실적, 할인 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사용금액의 0.9%를 할인한다.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3000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생활권에 롯데마트가 있다면 롯데카드의 ‘롯데마트 앤 맥스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롯데마트 및 롯데마트 맥스 이용 시 월 최대 10%를 할인한다. 월 최대 3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월 실적은 50만원과 100만원으로 구성됐으며 할인율을 차등 적용한다.

카드업계는 생활비 절약카드의 경우 소비패턴과 주변 인프라 등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조언한다. 아울러 월 할인한도가 1만~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만큼 고정지출에 따라 2장 이상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9일 “생활비 절약 카드는 전통적인 인기상품 중 하나다”라며 “과소비하지 않는다면 최근 높아진 물가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국제질서 위해 美와 긴밀공조”

尹, 블링컨 美 국무장관 관저 초청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사진)과 만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블링컨 국무장관을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확고히 구축됐다”며 “그 과정에서 블링컨 장관이 큰 역할을 해주었다”고 블링컨 장관의 방한을 환영했다.

이어 “북한·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동정세 불안으로 미국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핵심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미국 대외 정책의 주안점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맞춰져 있다”며 “역내 핵심인 한국과의 동맹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끈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 메뉴로는 오이 게살 냉채와 가을 대추·밤 죽, 해물순두부와 호두강정 등 한식이 제공됐다.

이 자리에 우리 측은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이 참석했으며 미국 측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대기업집단, 車·철도·운송사업 확장·재편

3개월 새 계열사 1곳 늘어 3084곳
폐기물처리 관련사업 재편도 활발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소속회사 가운데 자동차·운송 등 계열사는 증가한 반면, 건설·부동산 등 분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2023년 8월~10월)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9일 공개했다.

우선,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8월 3083개에서 11월 3084개로 1개사가 증가했다. 회사설립이나 지분취득 등으로 계열사 62곳이 편입됐고, 61곳은 흡수합병이나 지분매각, 청산종결 등으로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이 기간 계열사 변동이 있었던 대기업집단은 43곳이었다.

〈2023.8월~10월 기간 중 소속회사 수 변동 현황〉

2023. 8.1	편입				제외					증감	2023. 11.1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흡수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기타	계		
3,083	42	19	1	62	9	12	20	20	61	1	3,084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가운데 자동차, 철도, 운송 관련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 참여하기 위한 지분인수, 회사설립이 활발히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최근 3개월간 이 분야 12개사가 6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들어갔다.

KG의 경우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에디슨모터스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그 자회사인 자동차부품업체 에디슨건강기차-에디슨에스오, 자율주행개발업체 에디슨에이아이, 전기차충전기업체 에디슨파워, 전기선박업체 에디

슨에스엠이 등이 KG 소속회사로 동반 편입했다.

현대자동차는 철도운송사업 운영을 위한 에스트랜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위한 지티엑스씨를 신설했고, SK는 물류중개서비스업체 굿스플로를 인수했다.

SK와 태영, 유진은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구조 재편에 따라 소속회사 변동이 활발했다.

SK는 폐기물 수집·처리업체였던 리뉴원을 합병 후 물적분할해 리뉴랜드정

/세종=한용수 기자 hys@